

통계응답부담 측정에 대한 기초연구

2005년 5월

작성자 : 통계청 최 종 희

e-mail : jonghee@nso.go.kr

主 要 内 容

- 본 연구에서는 지난 몇 년간 주요 국가에서 토픽으로 다루고 있는 통계조사에 대한 응답부담 경감에 대해 캐나다와 덴마크의 실천사례를 살펴보았음
 - 캐나다의 경우 대규모사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위한 KPM프로그램과 소규모사업체의 응답부담 민원제도인 음부즈맨 운영
 - 덴마크의 경우 응답자와의 협력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응답자 동기부여, 조사표설계시의 응답자 참여, 응답자에게 자료 환류 등의 방법을 운영

- 향후 우리나라의 응답부담 경감방안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음
 - 응답실태조사에 대한 정비가 필요
 - 응답자의 응답부담 측정을 위해 우리나라의 조사실정에 맞는 측정방법을 도출하도록 노력

I. 개요

최근 대부분의 통계작성기관들은 조사통계에 대한 응답자들의 응답부담에 의하여 무응답 혹은 통계의 질 저하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OECD국가에서는 조사에 소요되는 예산 절감 뿐 아니라 응답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특히, 2003년 6월 OECD 단기 경제통계전문가그룹회의(STESEG:Short-term Economic Statistics Expert Group)에서 응답자 부담 경감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가 있었으며, 각 국가별 관련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통계 조사에 들어가는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응답자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각 국가에선 다양한 기법을 활용을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효율적인 샘플 설계로 샘플크기에 있어서의 부담경감, 행정자료 활용 확대, 자료수집의 새로운 기법 이용 및 효율적인 처리절차, 응답자와의 협력을 위한 개선된 커뮤니케이션 마련 등을 꼽고 있다. 또한 캐나다, 덴마크,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응답부담 경감을 위해 응답부담을 측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응답부담경감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좀 더 강화된 노력들이 필요하다. 기존 통계조사에 대한 부담은 물론 향후 요구되는 신규통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응답부담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분산형 통계제도에서 우려되는 중복조사 등은 응답 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이에 점차 응답부담에 대한 응답업체의 호소가 단체를 결성하여 나올 우려도 있다. 이에 각 통계작성기관별 통계조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통계작성기관간의 조정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 행정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착되어야 하며, 각기 다른 작성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통계과약은 물론 연계성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응답부담의 주요 요인 분석은 물론, 그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계량화 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몇 년간 주요 국가에서 토픽으로 다루고 있는 통계조사에 대한 응답부담 경감 실천사례를 이번 ISI에서 발표된 IP논문 중 캐나다와 덴마크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II. 외국 사례

1. 캐나다

가. 통계작성기관의 응답부담관리

캐나다 통계작성기관들은 통계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응답자와의 협력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오랫동안 인지해 오고 있다. 따라서 통계작성기관들은 응답자의 협력응답부담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전략 개발에 주의를 기울여 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캐나다에서 개발된 중요한 접근법인 자료공유, 응답자와의 협력관계, 사업체 대상 응답부담 측정, 연동표본 및 조정 기법, 자료수집방법 및 조사표 설계상의 개선, 행정자료이용 등을 서술하고 있다.

1) 자료공유

캐나다 통계법에 의하면 응답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료공유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의무응답 및 비밀보호에 관한 통계법과 유사한 법률이 존재하는 지역통계작성기관과의 자료공유가 가능하며 기타 정부기관의 자료가 응답자의 동의하에 공유가 가능하다.

2) 응답자와의 협력관계

조사의 목적, 조사실시 당국, 의무적인지 자발적인지, 제공자료의 비밀보장, 자료공유계획 등은 반드시 응답자에게 공지하도록 한다. 대규모 사업체 및 복합 사업체 대상 프로그램인 Key Provider Manager(KPM)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업기록 및 자료수집에 관련된 주요 스텝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하고 대상업체에 대한 보고 협정 타협, 설명 및 합리화에 노력하며 각각의 KPM은 15~20개 사업체를 담당한다. 또한 소규모 사업체 응답부담 민원을 운영(Small Business Response Burden Ombudsman)하여 부처장관에게 직접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소규모 사업체의 응답부담과 관련된 민원을 청원하도록 한다. 일차적으로 관련된 부서에 직접적으로 청원하고, 미 해결시에는 옴부즈맨에 의해 다루어진다.

3) 사업체 대상 응답부담 측정

1991년 이후 매년 측정하고 있으며, 사업체 부과되는 응답부담은 조사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시간으로 정의하여 측정하고 있다. 매년 조사실시 담당과로부터 보고 받은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며 총체적인 결과는 매년 성과보고(Performance Report)서로 발행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보다 세부적인 자료는 응답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기관 내 검토 및 전략 개발을 위하여 이용된다.

4) 연동표본 및 조정기법

주요 월간 가구조사인 노동력 조사(Labour Force Survey, LFS)에 대해 6개월 후에 표본 가구 대체하는 연동표본을 적용하고, 노동력조사 표본들을 다른 조사로의 이용하며 노동력조사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기타 가구조사도 시도한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체조사에 대한 연동을 적용하여 월간 고용·급여·근로시간 조사에 적용(12개월후에 대체)한다. 대부분 사업체조사는 사업등록자료를 이용하며, 다른 조사와의 표본조정을 위한 방법 개발도 연구 중이다.

5) 자료수집방법 개선

사업체 조사의 경우 전자적인 방법의 응답 가능성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정부의 방침도 정부 정보 및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한다. 보호방침이 되는 인터넷 응답사이트를 개발하고, 자료 유용성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키며 엑셀파일로 가능한 조사표를 설계한다. 센서스의 경우, 인터넷응답이 2006년 인구 및 농업 센서스 조사에서 선택사항이 되며 2004년 센서스 테스트에서 인터넷의 적용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외에도 효과적인 수집방법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6) 조사표 설계

모든 신규 및 재설계되는 조사표에 대해서 시험조사는 필수이며, 공식적인 두 언어, 영어와 불어로 작성되도록 하였고, 응답자는 요구되는 정보를 이해하고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그룹은 정책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것을 지원하고 기업회계 정보의 표준화된 분류체계인 Chart of Accouts(COA) 개발하였다. COA는

SNA(국민계정체계)요구와 표준부기방식간의 교량역할을 하는데, 모든 주요 연간 사업체조사는 2006년까지 COA 체계를 따라야 한다. 사업체 자료의 전자보고 분류에서도 캐나다 통계청과 공인회계기구, EXB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기술분류(XBRL)를 이용하며 COA 체계와의 호환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향후에는 응답부담최소화로 재정정보의 전자적 자료수집방법을 실행한다.

7) 행정자료 이용

가계조사의 경우, 소득자료조사를 대체하여 개인 조세기록을 이용한다. 응답자들은 통계조사 응답대신 개인 조세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청받게 되며 80%이상이 조사대신 조세기록 이용을 허용하는데, 유사한 접근법이 2006년 센서스에서 이용될 예정이다. 사회보장번호는 요구하지 않으며 오직 이름과 주소로 링크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사업체조사의 경우 사업체 고유번호는 몇몇의 행정프로그램을 커버하므로 행정자료와 사업체등록자료와의 통합을 피하며, 연간 납세신고서철을 위하여 법인사업체에 대한 재정정보의 일반화된 지표의 표준화한다. 특히 연간사업체조사의 경우 총 사업수입의 하위 10%를 대표하는 사업체만이 조세자료로 대체하고 50%이상 사업체는 조사에서 배제하며 조세자료는 무응답을 대체하는데 이용된다. 월간 사업체조사의 경우 Goods and Services Tax(GST)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측자료 및 에러자료에 대한 내검 및 대체하고 분기 및 연간보고서를 위한 대응 월간자료 생산을 하며 보조변수로 사용되는 전월 및 전전월 자료로부터 대체 GST 자료를 활용한다.

나. 결론

응답부담은 통계작성기관에 대해서는 주요 이슈이다. 응답부담은 다양한 방법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즉, 법률적으로, 응답자와의 관계 노력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응답부담 측정의 중요성과 과정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2. 덴마크

가. 서론

1990년중반 이후 응답부담 경감에 대한 관심은 늘 같은 수준이었지만 2004년에 덴마크정부는 2010년전까지 행정부담을 25% 줄이겠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 이 중 통계로 인한 응답부담은 전체 행정부담의 작은 부분이다. 행정부담을 측정하기위한 방법론이 모든 정부기관에서 도입되었다. 2004년에 덴마크 통계청은 이러한 정부기관의 첫 주자로서 응답부담측정 기관으로 선택되었다. 또한 2005년에는 모든 정부부처로 확대하여 행정부담을 측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부담 및 측정 방법, 응답부담 경감 방법, 응답자와의 협력체계 개선 등에 대해 소개하기로 한다.

1) 응답부담

지난 10년동안 행정부담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져 왔다. 1996년에 덴마크 Commerce & Companies Agency 에 의한 측정결과, 덴마크 총 행정부담은 DKK 21.8 bn.(약 US \$3.7 bn.) 로 측정되었다. 이중, 통계에 의한 부담은 DKK 1.2 bn.(US \$ 0.2 bn.)로서 전체 부담의 6%를 차지했다. 그러나 그 당시 덴마크 통계청은 이러한 수치가 너무 높게 측정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측정 방법에 대한 반대의견과 사업체에 부담되는 응답부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증가로 1990년 중반에 덴마크 통계청은 자체 응답부담을 측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응답부담량은 보고자료 개수에 각 보고자료당 소요되는 시간을 곱하여 측정되었다. 각 보고자료당 소요되는 시간은 협회 및 업체 자체 평가치를 기준으로 하였다. 총 부담량은 기업의 통계응답을 위해 소비한 모든 시간을 포함하여 계산되어진다. 1996년 전체 통계부담은 305 man-years로 측정되었다. 이 수치는 1997년에 250 man-years로 감소하였다. 이는 전체 부담의 2/3를 차지하는 무역부문의 응답부담 감소에 기인한다. 1997이후 응답부담 측정결과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체계화된 통계수행이 응답부담을 감소시키지만 EU에 의한 신규통계요구가 대두됨으로써 응답부담의 결과는 별 변동이 없게 나타났다.

2004년에 덴마크정부는 기업체에 부과되는 응답부담을 줄이고자 공통의 국제방법을 기초로 하여 정부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2004년에

덴마크 통계청이 시험연구 대상으로 선택 되었다. 2005년동안 이 측정방법이 기타 정부기관에까지 확대 수행되어져 덴마크 사업체에 부과되는 행정부담을 측정하게 되었다. 사용된 측정방법은 AMVAB(activity-based measurement of the enterprises' administrative burden)라 불리는 네덜란드 방식인데, 일부 사업체와의 면밀한 대표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하였다. 자료보고와 관련하여 조사별로 각 사업체의 소요시간이 측정되어진다. AMVAB의 사용은 응답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많은 방안들을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은 52개 승인 통계에 대해 이루어졌다. 2004년 7월에 보고자료와 관련된 전체 부담은 DKK 163 mio.(US \$ 29 mio.)로 측정되었다. 이 수치는 1996년에 덴마크 Commerce & Companies Agency에서 측정한 결과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 이 새로운 측정방법에 의한 결과에 따르면, 1996년에 계산된 부담량의 1/7에 겨우 미친다. 전체 행정부담 중에서 대외거래통계는 75%에 미친다. 2004년 분석에 의하면 덴마크통계청 자체 측정에 의하면 66%가 대외거래부문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부담을 측정하는 것은 흥미롭고 유용하다. 이는 통계생산자로서 하여금 응답자가 작성한 보고자료와 수반된 문제를 통찰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조사와 관련된 여러 과정의 일람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응답부담측정 방법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비교가 가능한 보편화된 방법에 의해 측정하지 않을 경우 국제간의 비교가 어렵게 된다.

2) 응답부담경감 방법

응답부담 측정에 대한 물음과 가장 밀접한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통계기관이 응답부담을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각 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은 검토해 볼만한다 즉, 이 조사가 꼭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수요자가 있는 것인지, 모든 질의항목이 꼭 필요한 것인지 혹은 일부가 생략될 필요가 있는지 등이다. 이전에는 잘 수립된 통계에 관해선 그러한 질문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았다. 오늘날 이러한 질문들은 상당한 검토사항이 된다. 이러한 검토는 매년 덴마크 통계청에서는 물론 EU에서도 신규통계요구와 관련하여 검토하고 있다.

응답부담을 경감함에 있어서 많은 방법들이 가능하다. 수년간 덴마크 통계청은 이러한 질문과 함께 연구해 왔다. 아래 4가지 사항이 응답부담 경감의 주요 사항이다.

① 행정자료 이용

통계기구들은 가능한 자료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보다는 행정자료로의 대체에 관심을 갖고 있다. 행정자료의 두 가지 이점은, 통계기관의 비용절감은 물론 통계 응답부담을 줄여준다. 덴마크는 통계생산과정에서 행정자료사용을 오랜 전통으로 갖고 오고 있다. 예를 들어, 인구 및 주택센서스는 거의 100% 행정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다. 단기경제 통계의 경우 행정자료 이용은 매우 중요하다. 단기경제통계 부문에서 행정자료 활용의 예로 월간 노동이동률 및 분기별 취업에 관한 것으로 들 수 있는데, 이 두 행정자료는 경제지표로서 바로 이용되어진다. 그러나 대부분 단기 경제지표는 직접조사에 의존하고 있다. 왜냐하면 행정기록이 단기 경제지표를 커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의성의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자료 이용이 적절치 않은 단기 경제지표의 경우는 응답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② 샘플링 절차를 최적화

소규모업체는 가능한 자료보고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다. 그러나 2005년부터 종사자 10인이하 사업체는 최대 3개 조사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해야 한다. 응답부담경감에 대한 잘 알려진 방법은 사업체를 표본추출하는 방법으로 결과는 승수화하여 나타낸다. 샘플의 크기는 신뢰성있는 결과를 낼 수 있는 한 가능한 줄이며, 사업체 조사의 표본조사통계에 대해 표본추출이 최적화인지를 끊임없이 확인한다.

③ 자료 보고의 편이(전자보고를 이용)

지난 몇 년간, 일부 특정통계에 대해서 전자적으로 자료를 보고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가 되어왔다. 2002년에 이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다. 덴마크 정부는 모든 사업체 포털사이트(virk.dk)를 개설하였다. 웹상에서 사업체는 일반 정부부처에 의해서 제공되는 사업관련 전자서비스를 찾을 수 있게 되었고, 사업체는 정부부처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virk.dk를 통해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포털사이트가 개설됨에 따라 덴마크 통계청은 자체 전자솔루션을 개발하는 대신 보고자료의 전자매체로서 이 포털사이트를 적용할 결정을 내렸다. 포털사이트 이용으로 응답사업체의 부담은 줄었다. 시간으로 측정된 응답량은 줄었다. 또한, 응답부담 경감을 위해 더욱 수요자 친화적인 조사표 설계 또한 필요하다.

④ 계정통계의 직접자료보고

계정통계에 관해서 덴마크통계청, 덴마크 Commerce & Companies Agency 및 중앙 관세·국세청을 위하여 기업에 의해 운영되어진 계정시스템으로부터 전자적으로 직접 자료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수년간 실행되어져 왔다. 2005년 작업은 기업에 의해 덴마크통계청, 덴마크 Commerce & Companies Agency에 보고자료를 전자적으로 직접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다음 단계로 중앙 관세·국세청에까지 확대될 것이다. 현재 덴마크 통계청은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해야 하고 각 조사에 대한 응답부담 경감을 기술하는 계획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0년전까지 응답부담 25% 감소에 대한 정부 목표를 수행하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다.

3) 응답자와의 협력체계

지난 10년동안, 덴마크 통계청은 응답자와의 협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일반적인 원칙을 연구해 왔다. 응답자와의 좋은 유대관계는 통계의 품질, 효용성 및 응답부담에 영향을 준다. 사업체와의 협력관계는 무엇보다 조사표기업의 정확성을 보장한다. 다음으로 시의적절한 응답결과를 받게 되고, 최종적으로 응답부담이 감소되어 질 것이다. 비록 대부분 조사가 의무화되어있어 응답률이 거의 95~98%이더라도, 응답자와의 효율적인 관계를 개선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의무화되지 않은 자발적인 서베이에 대해서는 조사수행 부서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80~95%로 응답률이 높다. 이러한 높은 응답률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사표형식의 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울 중요성이 고려되어 왔다. 1990년초부터 PC출현으로 조사수행과 연관된 기능들이 분산되었다. 즉, 자료등록 및 자료 내검의 분산화는 통계생산에 보다 효율적이었다. 그러나 응답자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보편화된 규정은 점차로 각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으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보편화된 기준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응답자의 동기부여, 조사표, 리마인드정책, 응답자를 통한 조사표작성, 응답자에게 결과환류 등 중요 5개 분야별로 작성되었다.

수년간 응답자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어 왔고 무엇보다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덴마크 통계청은 다른 기타 통계작성기관과 마찬가지로 보다 기능적인 방법으로 조사표기반 서베이를 연구하고자 고려하고 있다. 그 중심 아이디어는 여러

수집단위 중에서 중앙집중적인 자료수집단위를 설립할 가능성이 있는 하나의 응답자 중심단위 설립에 관한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응답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각각 독립된 조사이며 또한 종사자들은 사업체에 관련된 모든 조사의 중심개요를 얻을 수 있고 이러한 중심개요는 전자조사표의 기술적인 개발에 의해 가능하다.

나. 결론

덴마크 통계청은 그동안 끊임없이 응답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연구해 왔다. 이는 기존 조사, 새로운 조사 및 조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 조사의 응답부담경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 그 관심은 좀 더 확대되고 응답부담 측정의 보편적인 방법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응답부담에 대한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덴마크 통계청은 다른 어느 정부부처보다 유리하다. 덴마크 통계청은 각각의 조사에 대한 응답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만간 검토를 준비하고 있다. 응답자와 지사단체와의 협력관계의 중요성도 인지하고 있다.

Ⅲ. 시사점 및 제안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조사 응답자로부터 이해와 협조를 얻고 응답자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응답부담 경감에 대한 노력 등 응답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통계행정업무야 말로 중요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캐나다, 덴마크에서의 응답부담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관심과 검토를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응답부담관리 방법으로는 응답자와의 협력체계 마련 및 응답부담측정을 들 수 있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는 대규모 사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위한 KPM프로그램과 소규모사업체의 응답부담 민원제도인 옴부즈맨 운영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응답부담경감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적인 측면은 물론, 법률적으로도 관리되고 있으며 그 실례로 응답부담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는 응답자와의 협력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응답자 동기부

여, 조사표설계시의 응답자 참여, 응답자에게 자료환류 등의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행정부담의 하나로 통계응답부담측정을 덴마크 통계청에서 다른 정부기관에 앞서 측정·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응답부담경감의 노력으로는 1999년 이후 꾸준히 실시되고 있는 응답자간담회, 인터넷기반 조사 방법, 응답부담요인 및 비승인 통계를 파악하는 응답실태조사, 행정자료 활용에 대한 노력 및 연동표본적용 등이 있다. 그러나 향후 요구되는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3년마다 측정하고 있는 응답실태조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내부용으로만 이용되고 있는 동 조사의 표본설계 및 조사항목 등의 정비로 응답부담의 주요인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응답부담경감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찰 및 가계조사의 연동표본 적용으로 그동안 조사기간이 5년이었던 샘플가구에 대한 부담은 1개월 내지 3년으로 감소되지만 작성기관인 통계청에선 매월 새로운 표본가구에 대한 응답 협조 등 신규표본 관리에 고민을 해야 한다. 벨기에의 경우 신규가구에 대해 복권 등을 배부함으로써 응답협조를 유도하기도 한다. 우리의 경우도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응답자들이 느끼는 응답부담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응답부담을 측정하여 조사환경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되도록 하며 통계품질평가요소로도 활용가능하며 국가간 비교도 가능하게 된다. 응답부담을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적 측면이나 투입되는 비용측면으로 접근하여 파악할 수 있다. 향후 측정 방법은 측정국가들의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조사실정에 맞는 측정방법을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통계조사 응답부담경감에 대한 노력으로 응답자와의 협력관계와 응답부담 측정 등을 살펴보았다.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응답부담경감에 대해 한층 더 심화된 노력으로 조사통계품질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겠다.